기록을 먼저 키고요, 어- 뭐, 바로 하죠.

넵.

그…… 안녕하세요. 우선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답변은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것이고 당신의 답변은 오직 이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기록할 때는 당신의 이름이 아닌 코드로 대체될 것입니다. 인터뷰 결과는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인터뷰 기록들은 당신에게 공유될 수 있으며 당신이 피드백을 원할 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한 시간 가까이 걸릴 것이며, 당신이 원하시면 이 인터뷰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제 연구를 위해 인터뷰 기록을 사용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터뷰를 녹음해도 될 까요?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어- 대학교 1학년이 끝나셨죠? 이제?

네, 이제, 막바지죠.

이번 학기를 보내면서 뭔가 본인 스스로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번 학기 보다는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거, 그렇게 된 계기라도 있을까요 혹시?

음, 뭐, 어찌됐든 저번학기에도, 저 그니까, 저번학기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예.

그니까 어떤거를 공부를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 지.

예.

그런 걸 대학교도, 적응, 그러니까 수업에 적응도 했어야 됐고.

네.

했는데, 그- 저번 학기 끝나면서 요번 학기 들어가면서, 이제 좀 적응도 완료 했고, 뭘 공부해야 될 지도 알- 알게 되었고 해서

예.

저번학기 보단, 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애요.

음, 적응을 하긴 하셨는데, 코로나 나으면 또 적응해야돼요, 그죠?

에헤,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좀 그렇네요, 흐흐. 알겠습니다. 그럼 신입생 캡스톤 강좌가 다른 강좌와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강좌와 아,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전공 다른 수업이랑 다른 점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렇죠. 뭐, 꼭 전공 아니더라도 뭐, 아마 뭐, 지금 뭐, 교양으로 영어수업도 듣고 그러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뭐, 포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강좌니까 그냥.

음, 솔직히 캡스톤이 그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라 패스 페일하는 수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 대학교 첫 대면을 또 캡스톤에서도 했었고 한 번 딱, 예.

아, 그러면 1학기 때도 하셨던 거에요?

아뇨아뇨, 2학기 때, 대면을 처음 딱 한게,

아 대면을 처음 딱 한게?

네 네 네.

아.

그래서 뭐, 딱히 다른 점은, 되게 그게 이게 이제, 수업을 안하시다 보시니까

예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없다보니까

네.

그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애요.

알려주는 게 없다 함은 무엇을 모르고 그 뭐-

그니까 저- 저희가 아두이노- 라는 것도 아예 모른 채 이 수업을 그냥 들으라고 해서 들은 건데

아 예.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 혼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아두이노 코딩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거 아예 전혀 모르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간 상태여서, 근데 막상 수업 들어가 보니까 교수님은 뭔가 알려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동영상 하나 보여주고 뭐, 그 계획 같은 거만 짜는 것만 체크해 주시고, 그런 것 밖에 없다 보니까

예.

다른 수업에 비해서 이제, 많이 힘들었죠.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뭐, 이 강좌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음, 일단은, 일단은, 아두이노죠. 일단 아두- 아두이노에 대해서도 배웠고

예.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 같은게 어떤 식으로 코딩이 되- 되는 가도 배운 점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을 배웠던 것 같아요.

직접 그렇게 배우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쵸. 근데 솔직히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도 저희가 다 혼자서- 공부를 한 거다 보니까, 하하

예.

그 교수님, 이 수업을 통해 배운거라고 해야될 지, 아니면 제가 구글링을 해서 배운거라고 해야 될지

으으음~.

뭐, 웃기네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입생 캡스톤 강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첫인상이 들었나요?

음- 뭐지? 그러니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1학기 때 패스 페일 같은 수업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예.

그러고, 수업하는 방식도 조금 달랐고, 아예 이거는 실습 위주로 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았고, 그래서 진짜, 좀 뭐지 라는 느낌?

좀 벽을 느낀 그런 건가요?

예, 아마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어, 중간고사는 없고 그냥 마지막에 기말고사 그, 자기가 했- 만들어놓은 그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거다 보니까

예.

이제 이번, 이게 중간고사 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막상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아 해야되는데, 해야되는데 하면서 또 막상 계속 하다보니까 어우, 되게 어렵고, 어렵게 느껴지고. 네, 그쵸. 말씀하신 대로 약간 벽을 느끼기도 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끝나가잖아요 이제?

네.

사실상 뭐 이제 거의 끝났죠?

네, 이제 다음주면 끝이 나니까

그러면은 그- 그러면은 그- 인상이라던게 그런게 좀 바뀌었을까요 혹시? 맨 처음에 느꼈던 것 보다?

어떠- 어떤 거에 대한 인상을 말씀해- 하시는 건가요?

어, 캡스톤 강좌요.

아아. 어허허, 그니까 이제, 익숙해지지긴 했는데, 그 아두이노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래도 뭔가 기초 사전지식을 알고 들어가는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음.

그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떡하니 이거 프로젝트니까 이거 해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수업도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은 힘들지만 뭐, 그래도 혼자 해서 아두이노는 익숙해졌으니까 뭐 된거겠죠? 흐흐.

그게 뭐, 원하는 거겠죠. 그- 교수님들이. 어, 그러면은 이 강좌에서 본인의 프로젝트 접근 방법에 어떻게 평가해요? …… 접근 방법이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아이디를 어떻게-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는가, 아니면은 주제를 어떻게 찾았나, 설계는 어떻게 했나? 만드는 건 어땠나. 뭐, 그런거에 대한 접근 방법.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접근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뭐 한게

예.

제가 아무런 기초지식도 없기, 없어갖고, 그냥 전부 구글링해서 얻은 거라서, 흐흐흐흫

어-

결국에는 굳이 따져서 말을 하자면, 구글링이라고 말을 해야겠네요.

구글링으로?

네.

어, 그러면은 프로젝트 아이디어도 그럼 구글링으로 뭐, 아이디어를 찾았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서 쳐갖고

예.

좀 아두이노로 만들 수 있는게 무엇인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고.

예.

네, 그런걸로 찾아본 것 같애요.

아, 그러면은 뭐, 이미 거의 다 되어있는 거겠네요? 막 설계도 그렇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코딩하는 부분 이제 어떻게 하는 지, 그런 거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다 보고 했죠.

그러면 실제로 만드는 거는 어려웠어요?

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인터넷에 다 나와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만- 실제로 만드는 건 어렵진 않았는데, 인제, 음, 이- 아두이노의 장치에다가 코딩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애요.

그러면은- 그 본인 프로젝트- 결과는 만족해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좀 아쉽죠. 그-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한되는 부분이 엄청 많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 프로젝트 뭐, 그거, 뭐, 뭐라고 해야되나, 주제는 뭐, 뭐 만드셨어요?

제가 그, 습도 확인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아-

습도계. 그래서, 그 솔직히 되게 좀 쉬운 걸로 만들기도 했고

예.

쉬운 걸로도?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고. 뭔가 좀 오프라인으로, 에 있어서 좀 뭔가 잘 활성화가 돼있었고, 오프라인으로 했었으면, 좀 더 뭐, 나은 걸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 네.

그러니까, 좀 인터넷에서 본 거-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쉬웠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느낀다, 그 말씀이신 거에요?

네, 그죠.

으으음…

그리고, 또 이제 수업에 대한 아쉬움, 그런게 다 복합적으로 섞여서 아쉽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 프로젝트에 10점 만점으로 준다면은, 몇 점 주- 몇 점 정도 줄까요? 혹시?

아하하, 5점은 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오긴 했으니까 결과물이?

5 점이요? 어…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하는 도중에 주제는 바꾸고 싶었던 적은 없나요?

주제를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바꾸고 싶었는데, 그- 그게 안 나더라구요. 그- 아, 단어가 생각이 안나네.

엄두?

엄- 네, 엄두가 안나더라구요. 흐흐흫

아.

이걸 또 인터넷에서 세- 하나하나 다 찾아가갖고 해야되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그럴 엄두가 안나더라구요.

그럼 바꾸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솔직히 습도계 이런 거 만드는 것 보다 내가, 진짜 좀, 좀 괜찮은 결과물을 내면은 좋잖아요? 순전히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시시해 보여서?

네, 배우- 일단은 이것도 수업의 일환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내면은, 저로서도 더 만족을 했을 텐데

예.

근데 이게, 그게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키트가

예.

다 있는게 아니라서,

예.

무언가 좀 더 뭐, 괜찮은 걸 만들려면 뭔가 또 사야되는- 사야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예.

그러- 필요한 부품이 다 있는게 아니라서 키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저희 때는 레고, 마인- 마인드스톰을 썼거든요?

오오… 네.

근데, 그거는, 저희 때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그 교수님이, 그 부품을 가져와가지고 만져보고, 너네들이 이- 그- 그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기구를 다 늘어놔요. 늘어놔서 만져보고? 이 도구가 이런 작용을 하고 그런 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설계를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으음~

뭐, 좀 다른가요? 그- 본인 들은 광- 본인이 들었던, 그 옛- 뭐라고 해야되나, 강좌랑 비교하면은?

어, 지금 제, 지금 제가 듣고 있는 핫산교수님 수업이랑 비교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은-

예. 같-같은 교수님이에요.

네, 그니까.

그-

네, 그거- 네, 많이 다르죠. 지금은 온라인이라갖고, 그냥 동영상 하나 보여, 그- 보여 주시고, 이제 뭐 계획 같은 거 pp- 그 워드로 쓰고 내라고 하시고 그것밖에 안해가지고

예.

그렇게 되게 도움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좀 오프라인- 아니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방금 저희같이 만져보고, 직접 연결해 보고, 그런 다음에 계획을 내라고 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됐을까요 본인한테?

아우, 물론 도움이 더 됐겠죠?

어, 그러면 역시 이게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그 차이네요 역시?

그-렇죠.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두이노 쓰셨다고 하셨죠?

네, 아두이노.

그러면은, 아두이노 써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라즈베리 파이보다는 쉽더라구요 그래도.

그말인 즉슨 라즈베리 파이를 예전에 한 번 써봤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아예 처음 접해본 거에요. 이 수업을 통해서.

예.

뭐, 라즈베리 파이든 아두이노든 처음 접해본 건데, 이제 그 동기들도 아- 그 라즈베리 파이를 듣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듣- 들어요

예.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아, 아두이노가 좀 쉬운 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으으음. 그러면은 그 동기들은 뭐, 라즈베리 파이 쓰는데 어떤 어려움을 보통 겪었나요?

부품이 없어서, 아예

아아-

새로 사는 경우도, 사는 동기도 있었고,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진짜요?

네.

아아.

결국에는 이 키트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학기 말 때.

그쵸?

뭐, 종강을 하고 나서.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돈, 자기 사비 털어서 쓴다는게 좀 되게, 좀 그랬었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거를 저희 때는 아무도 안 샀거든요.

하하.

근데 뭐,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산 거면 저는 뭐,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허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파이랑, 그- 그거 두개로, 프로젝트 두개를 한 학기에 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혹시?

두개를요?

예. 프로젝트 두개.

어떤 뭐, 뭔가 제한되는 게 있나요? 혹시? 거기에 있어서?

제한되는 거-라 말씀하시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니까, 뭐, 그니까 임의로 무언가를 지정해서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 뭐, 그니까- 제-

그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주제를 그러니까 임의로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라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나 해서.

아, 아마 프로젝트는 뭐 자율? 으로 주제를 고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옹.

왜냐면은, 뭐 쉬운 것도 많이 있으니까 만들 수 있으니까

아- 그냥 쉬운걸루다가?

네. 흐흐흐.

아- 그래도 괜찮죠. 뭐,

에. 아 왜냐면은, 그, 그 성적으로 그니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일 패스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만 내 놓으면은, 패스만 하면 되니까.

그죠. 어차피 요구한 거는 뭐 대단한 거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라고만 한 거니까?

네, 그죠그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 뭐냐 아두이노는 배울 때, 인터넷으로, 구글로만 배웠죠?

네, 그죠.

어려웠나요?

어- 그 이제 코딩하는 거에 있어서는 살짝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냥 그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 그럼 직접 그 아두이노 받고 그거를 사용할 때 그거는 어려웠나요?

어떤 걸 사용?

아두이노요.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게 직접 그 아두이노 키트를 받아와서

네

뭐 코딩하고 이것저것 조작하고 만지고 부품 만지고 그런 거요.

아. 음. 그니까 부품 만지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코딩?

아까도 말했듯이 코딩하는 부분만 살짝 어려운 정도?

아하, 그니까 배우는 것도 코딩이 어렵고 사용할 때도 코딩이 어렵고.

네. 그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근데 처음 배울 때 뭐 좀 친근하게 다가왔나요 그 툴킷이? 그니까 그 아두이노가?

어, 전혀 친근하지 않았죠. 왜냐면 진짜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거다보니까,

예.

또 숙지도 못해갖고, 아, 그, 제가 사실 이제 원래 문과였는데

아-

이렇게 왔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원래 문과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온건데, 그래서 진짜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 친근하게 다가오진 못했죠. 네.

아, 그러면 원래는 문과대학교에 있다가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취업사정이 걱정되서 혹시 막 프로그래밍 이런 쪽으로 오신 건가요?

어,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제가 이제, 어 스무살 때 대학교를 갔다가 그냥 좀 놀았어요 많이. 하하. 그래서, 군대도 갔다와갖고

군대도 갔다왔어요?

네. 흐흐

몇 년차신데요 이제?

제, 이제, 그 작년에 제가 전역을 했어요.

아 그럼 이번 년에 예비군 1년차네요.

네네네.

아 저는 4년차입니다.

아, 말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누가 말을 해줬어요 이거를?

아니, 그, 그 동기, 그 때 면접 도우미 때-

아 예.

같이 갔던 친구가, 제 동기가, 그 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그, 저도 일단 나이가 많다보니까, 다른 친구들 보다.

예.

그래서, 우와 있구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구나 하고 듣기만 들었어요.

허허허. 아 그러면은, 그, 그 동기라는게 저희 동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님 그쪽 동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20학번?

저희, 20학번. 네.

아, 20학번이 작년에 면접을 들으러 와서, 어떻게어떻게 나의 존재를 알아서 그거를 얘기해줬다? 어…

아, 면접 때 말고 이제 면접 도우미 때 갔- 면접 도우미 때문에 같이 가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 면접 도우미가 아니라 그거, 그 학교, 학교 도우미? 그거-

뭔지 알 것 같네요. 뭔지 알 것 같네요.

네네네네. 그것도 그랬고, 그 김봉균 교수님이랑 면담을 할 때,

예.

이제 학과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라는 소리도 들었었고.

흐흐흐흫.

흐흫흫, 예, 왜냐면은 저도 군대를 갔다 왔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예.

학과에도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시는- 아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네.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알겟습니다. 아, 갑자기 크흫, 그 서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욜로 갔네요.

하하하하,

어디까지 했지? 아, 그, 이 강의 듣기 전에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았나요?

음, 뭐 코딩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 가요?

그렇죠. 뭐 프로그래밍이 코딩이죠 뭐.

네네. 그, 네. 좀 그래도 그나마 파이썬 정도?

파이썬 정도?

네.

어, 그러면은 이 강의에서, 뭐 프로그래밍을 해봤어요?

어 파이썬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아두이노가 그 파이썬이랑 연동이 되는 군요?

네, 연동이 되- 그니까 제가 블로- 그걸 인터넷으로 봤을 때

예.

거기에서는 파이썬으로 하더라구요.

아, 저는 그, 아두이노는 안 만져봐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 할 때 코딩 문제는 있었나요?

음, 사실상 그 코딩 입력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없었는데,

예.

이제, 그거를 노트북- 그러니까 PC에다가 연결을 해갖고 그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예.

그 절차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코디- 코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군요?

예.

아, 알겠습니다.

뭐 그거야 이제 보고 베끼면 되니까.흐흫

아하. 그러면은 뭐, 강의에서 뭐, 프로그래밍 같은 거는 안 배웠겠네요?

그죠?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학계산도 베꼈으니까 안 했을 거고? ……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이 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예.

코딩 학원을?

예.

인제 거기서부터, 거기서,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C 언어를 배웠고

예.

파이썬을 배웠고, 지금 이제 겨울방학 때 자바를 배울려고 해요.

예.

이제, 배우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 진짜 파이썬이 정말 쉽다. C언어에 비하면.

그쵸그쵸그쵸그쵸.

그런, 그런 거랑? 인제 C언어는 어, 진짜, 진짜 어렵더라구요. 생각해야 될게 좀 많이 있고.

아아.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되게 어렵다. 근데 또 하다보면, 재밌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잘 하게 될 것 같아요?

잘 하게 돼야죠? 취직하려면?

알겠습니다. 그럼 장래에 그러면 취직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거네요?

음, 그 부분도 아직, 그니까 그 부분도 정해야 하는데 이제, 그 개발, 그 저희가 2학년 끝나고 제가 듣기로는 전공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쵸그쵸.

이제, 개발자 쪽? 그러고 아니면은 빅데이터 쪽? 그렇게 정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예.

어,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구요. 어디 쪽으로 가야 될 지.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결정이 되야 음,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그래도 어찌 됐든, 다 기초니까, 파이썬이나 C언어나 자바나 이런 거, 할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거는 다 배울라고 하고 있고.

그럼 둘 다- 둘 다 프로그래머 아닌가요? 그 빅데이터 다루는 것도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뭐 지- 그 뭐야, 인공지능이나 뭐 그런 것도 뭐 프로그램이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은 네, 또 그렇네요. 으흐흫흫흫

아 뭐 데이터- 데이터 아날리틱, 이런 거는 좀 다르게 취급하시는 거일 수도 있구요. 모르죠 뭐, 그 데이터 전문으로 그-

네.

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그 이제 일주일 있다가 선택을 해야되거든요?

네.

근데 1년동안 남았으니까, 뭐 천천히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 전공 선택하시는 거?

예.

네, 천천히 한 번 생각을 해 봐야죠.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인 프로젝트죠?

네.

그룹으로 해보고 싶진 않았나요?

어, 제가 봤을 땐, 그룹으로 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아,

뭐 알아듣기도 뭔가 또 좀 더 쉬웠을 거고.

예.

네, 그룹으로-

알아듣기는 영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그 이제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룹으로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쵸?

근데 물론 그 이제 그 공유를, 공유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

근데 할려는, 할려고 하는 친구들이 모으게 되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하면은, 그 여럿이서 뭐 서로 지식도 나누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는 것도 많아질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걸 그 친구가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님 그 친구가 모르는 걸 내가 알려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룹에 몇 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룹이라 하면?

음- 세명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요?

세 명이요?

네. 너무 좀 많아도 그럴 것 같고. 뭔가 많으면은, 되게 좀, 좀 되게, 엄청난 결과물을 내야될 것 같아서 흐흫흫

그런게 있긴 해요. 그 교수님들도, 너네들은 팀이 많으-, 숫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곱하기 4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그죠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세- 저-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부분이 다 세명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어,

아마 그게 좀 적당한 것 같네요. 흫흫흫.

흫흫흫흫.

뭐, 그런 다음에, 개인 프로젝트였는데, 다른사람과 프로젝트 관련해서 생긴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나요?

음… 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 그, 동기들끼리 좀 친해진 그룹이 있거든요?

예.

그 그룹에서,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좀 그게 있더라구요. 문제 때문에 막 되게 많이 알아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엔 없었던 것 같아요.

인제 문제가 별로 없었으니까.

네.

아, 이제 그런것도 일면이죠 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제일 큰 문제도 뭐 딱히 별로 없었겠네요 그 코딩 빼고는?

네, 별로 뭐 그렇게까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러면은 아두이노 조립 같은 거 할 때, 뭐 기계적인 문제는 없었나요?

어, 너무 잘 나와 있어갖고, 인터넷에서 흫흫흫

어 그래요?

그냥 이것, 이것만 하고 그니까 이게 그 도면이 다 나와있고 막 연결하는 방법도 다 있어갖고, 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프로젝트를?

어, 있었죠.

어,

이제 기말-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예.

흐흫, 아, 해야되는데, 해야되는데 해갖고, 뭐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해야되니까 하는 그런? 그런 거?

최근에 느낀 거네요?

그죠, 이제- 이제 막 바빠되면서 기말고사 기간에. 아, 이것도 해야되지, 이것도 해야되지, 하면서

예.

막 해야될게 많다 보니깐, 그냥, 아 때려치고 싶네 하다가도 이제 또 만들고 또 그랬었죠.

아. 그러면은, 뭐, 하다가 결국에는 만들었네요? 어…… 그러면 이것도 넘기고. 흐흫. 이 강의에서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어, 일단은 결과가 나온게 아니라서, 그 이제, 그, 장담은 못하지만, 흐흫

예.

그, 실패라고-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있죠.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기말과제로 아두이노도 내야되지만, 뭐 동영상 같은것도 찍어야되고, ppt 발표 같은 것도 해야되갖고,

예.

그런거, 그니까, 제가 채점하- 그니까, 제가, 패스 페일을 정하는게 아니라 교수님이 정하는 거니까

예.

일단은 열심히는 하겠는데, 뭐, 실패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했죠.

아, 가능성은 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없으니까 패스- 그 본인 생각에, 본인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음, 흐흐, 뭐 그 이걸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 같은 걸 해결한다는 전제 하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잘 안들려서요.

아, 그,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

내가 잘 했나 안했나 이런 전제 하로- 뭐

아, 그 전제 하로?

네.

아뇨 그냥 이거는 제너럴- 제너럴하게요.

아, 그냥, 그냥 평소에?

예.

어, 네 저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게 뭐 근거가 있나요?

음 흫흫.

생활에 살면서 뭐 예시가 있다던가?

근거가 없긴 한데,

예.

되게 좀, 자랑은 아니지만 멘탈이 좀 좋은 편이라서 제가,

예.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은 약간 좀, 그래도 좀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갖고, 해결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물론, 군대 안에서도- 군대 안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 본인 생각에 나중에 직업이- 직업을 가졌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 엄청 많이 될 것 같애요.

그죠?

네.

그 사람-

예, 예. 말, 말 하세요.

예, 그 뭐냐, 사람이 뭐 다 성공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흐흫, 도움이 되겠죠 아마?

사람이 성공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직업 생겼을 때 문제 해결능력이 도움이 된다. 어…… 잠- 그 잠깐 이해가 안 되네요. 허허허.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상 그, 일이 잘 될 순 없잖아요,

예.

그니까 모든 일이든, 그래서 뭐, 어떤 문제든 직면하기 마련인데

예.

그때 인제 그 문제 해결능력을 잘 이용을 해서,

예.

잘 해결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아, 그런 뜻으로?

네. 내가 성공이라고 잘못 말했던 것 같- 네.

그니까 문제는 항상 생길 수 있으니까,

네.

해결 능력이 있으면 좋다.

네, 그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전하는 건 좋아해요?

아, 좋아합니다.

오오오, 그러면은 도전이 본인 개발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자기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어… 많이 되는 것 같애요. 근데, 제가 이제, 도전 하는 건 좋은데

예.

좀 어느 순간부터 안되게 되면은, 약간 싫증내는 부분도, 어느정도 있어갖고.

예.

그걸 좀 잘 조율을 하면은 좀더, 제-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멘탈 튼튼하다고 하셨는데, 또 싫증은 또 내시네.

아하하하, 그러게요하하하하

그냥 한 번 꼬집어 봤습니다.

으하하하, 하하,

엄, 그러면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죠?

그래도, 하라는 건 했다?

아, 본분은 다 했다.

네, 그렇게까지 내 뼈를 갈아넣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분은 다 한 것 같다?

음, 그러면은 충분히 뭐, 성공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죠?

아, 예.

어, 하. 일단 결과물은 냈으니까, 일단 성공한 건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0점 만점으로, 또 다시 10점 만점이요. 에. 그, 이 강좌에서 본인 성취의 정도를 매기자면?

그것도 5점인 것 같애요.

맨 처음 10점 만점은 본인 스스로에 만족하는 거였고, 이번에- 아- 맨 처음 게 프로젝트고, 지금이 본인 스스론데, 둘 다 5점 만점으로, 아- 5점으로-

10점 만점에 네, 5점.

10점 만점에 5점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다른 것도 다 5점인가요 혹시?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니 근데,

예.

그거는 제, 그니까, 그니까, 수업마다 다른 건데,

예.

저희가 데이터 스트럭쳐 배우잖아요?

예.

저, 지금 저희가 데이터 스트럭쳐를 배우는데, 그거는 좀 만족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 그럼 그 강좌는 본인의 흥미와 맞나요?

어… 네, 어찌 됐든, 제가

예.

진짜 1학기 때는, 1학기 때 진짜 아무것도 몰라갖고, 파이썬 하는 것도 솔직히, 파이썬 하는 것도 솔직히 수업을 되게 포기하다시피 들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답답해갖고 여름방학 때 학원을 다닌 건데,

예.

진짜 학원을 다니고 나서 보니까, 좀 재밌더라구요, 하는게. 코딩 하는게,

예.

그래갖고, 요번 2학기 때 데이터 스트럭쳐 하는 것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애요. 그 이유 때문에.

잘 됐네요. 그건 뭐, 그렇게 흥미가 생-, 아! 그러면은? 학교에서 배운거랑 학원에서 배운거랑 차이는 뭘까요?

아! 솔직히 교수님이- 이런 말 해도 되나? 교수님들이 좀 잘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아아~ 그, 그, 한국어 수업 들었어요 혹시?

아, 그, 1학기 때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예예.

네, 1학기 때 한국어 수업.

아 그러면은 학원과 학교의 그 교수님의 그 국적은 다름이 없네요.

네, 다름이 없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본인이 그, 교수님이 그, 잘 가르치니, 안 하니, 그 것도 있네요, 확실히. 예.

그죠. 확실-히, 좀, 되게 제가 학원을 가기 전에 되게 많이 알아봤거든요.

예.

좀 잘 가르치는 데로 가고 싶어갖고.

예.

네, 그런, 가서, 잘 가르치는 데에서 받아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다르구나 해서 또 흥미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 교수님 스타일이랑, 학원 강사 스타일이랑 어떤 게 차이를 만들었을 까요?

아, 그리고 이게 좀, 그, 좀, 뭐라고 해야되지? 어찌 됐든, 온라인이잖아요?

그쵸.

1학기때도 온라인으로 했었고?

예.

근데 저는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예.

근데 오프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어… 이제 모르는 것도 바로바로 있으면은 바로바로 캐치해주셔갖고, 알려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는, 그 문법 개념을, 되게 잘 설명을 잘 해주더라구요.

예.

그 언어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제가 진짜- 아무것도 오히려 무지했는데, 진짜 잘 이해를 한 것 같애요. 거기 그런 걸 진짜 잘 이해를 하게 잘 알려줘갖고, 음.

음. 알겠습니다. 어어, 굉장히 흥미롭군요 방금건.

아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교수님들 ppt만 읽어주시는 교수님들도 좀 있잖아요?

아, 그런 건 있죠. 확실히. 그,

네.

근데, 확실히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그게 제 생각에는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 교수님이 그래도, 물어보면은, 조교시켜가지고, 그 옆에 대기하는 조교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해결해라 하면 딱 그 알려주고 조교가 그러거든요, 본인이 올 때도 있고, 바쁘면은

그래가지고, 음,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무래도 저 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또 한 번 겪어봤으니까,

네.

해서 말씀하는 건데, 말 하- 말 하는 건데, 말 드리는 건데, 오프라인 온라인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뭐, 모르죠 또. 교수님 스타일이 차이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확실히 ㅎ- ppt 보면서 하는 거면은, 재미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데 읽어주면 어쩌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죠.

어, 또 딴 데로 샜네.

아하하하,

음. 어디까지 했지? 엄,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창의적인 사람 같아요?

어, 그니까, 이, 그 창의적인 것 보다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그니까 예시를 들어갖고, 이제 저희가 코딩할 때 이거를 좀 파고든다고 해야되나? 여러 방면에서 봐야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그래도 좀 자신이 있는데, 창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만든다던지, 새로.

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애요. 제가. 네.

음- 그러면은, 한가지에 몰두해서, 그것을 다각도로 보는 것은 잘 하는데,

네.

뭐, 새로 만들어내는 거는, 그런 거는 하- 잘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 만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뭐, 창의적이지 않은? 방해하는 이유?

어… 되게 좀, 하하하, 되게 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창의적인 거 보다는,

예.

뭔가 그냥, 그, 그냥, 있는데 왜 굳이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아아-

그거를 다방면에서 보면은 더 괜찮을 텐데, 굳이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니까 뭐 이- 진짜, 되게 진짜 간단한 예시지만, 뭐 게임을 할 때도 뭐 아이템 빌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굳이 뭐, 그런 걸 만들어, 굳이 뭐 따른 그런 공유하는 게 엄청 많은데,

그쵸?

그 새로 만드는 재미도 물론 있겠지만, 왜 굳이 고생해서 그걸 만들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니까 기존에 이미 길이 있으면은 그거를 밟아야 되지 왜 굳이 새로 가느냐? 그거죠?

네.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걸 많이 보셔야겠네. 아무래도, 그 이용할 수 있는게 있으면은 빠딱빠딱 하야- 해야되니까.

어우, 네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허허,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체스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어요.

오오.

근데 맨 처음에는 체스 라이브러리 가 없- 있는 줄을 모르고, 그 체스 막 그거, 말 마다 뭐 룰 설정해주고 막, 그거 막, 그랬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직접 다 하신거네요 그러면?

하려고 했다가- 라이브러리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 체스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헤헤헤

그래서 바로 써먹었죠.

네네네. 어허허헣, 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걸 쓰는게 낫죠.

네. 그죠.

예. 어, 그러면은, 몽상하는 건 좋아하나요?

몽상?

네. 영어로는 드리밍. 어, 정확하게는 그, 교수님이 영어로 써주셨더라구요. 요거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꿈꾸는 걸 뭐 좋아한다는 그니까 뭐 목표를 잡아서 그런 걸 한다는 그런 걸 좋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저의 단어 정의 안에는 몽상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어- 있다고 생각해서, 몽상이라고 단어를 채택하긴 했는데, 일단 영어 원문은 드리밍이었어요.

음- 허, 되게 좀 갑자기 심오한 질문이네요.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하게- 하는 것 같애요. 왜냐면은 되게 저도, 목표가 있어야 그래야 더 열심히 하니까,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꿈이- 꿈 꾸는 거는 좋아하느냐...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꿈이라는게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나요?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학교 생활에 영향을 미친 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단어는 꿈이긴 한데, 목표라고 봐도 되니깐.

어- 일단은, 어- 목표 때문에 학교에 온 거고,

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뭐 본인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영향일까요, 아님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것도 있고? 왜-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을 해야, 졸업을 하고, 내가 이 학교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그 목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음- 적극적이진 않지만 좀 더 수월은 할 것 같애요.

어-

왜냐면 한 번 해봤으니까.

그렇죠. 뭐든 한 번 해보면은 그 다음이 쉽더라구요.

그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겠죠.

그쵸.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을 의향이 생겼습니까?

저는 원래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주 들어요.

아.

이거를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네.

아, 원래부터 충만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제 생각이 다 옳은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 저는 그걸 종합해갖고, 그렇게 해결하는 편이에요. 보통.

알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한 것 같습니까?

하하, 하, 어- 아닌 것 같애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그 이유는 뭘까요?

어, 솔직히 말해서, 그니까, 이 수업을 들어서 도움됐던 부분은, 제가 아두이노를-에 대해서 안 것이고,

예.

뭐 외, 그니까 다른 외적인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 저 혼자 했거든요.

예.

흐흫 그래서, 뭔가가, 그, 이 수업을, 아 솔직히 수업을 통한 건 맞- 맞긴 한데, 수업을 통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혼자 하려고 한 거긴 맞는- 맞긴 맞는데,

예.

근데 이제, 굳이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 말이네요. 강좌- 강좌가 문제 해결을 하는게 아니라, 강좌 자체가 문제라서 그것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습득했다, 그 말이네요?

그죠.

(웃음)

(웃음)

어우, 죄송합니다. 흐흫흫흫

어우, 제가 말하- 말하고도 조금 웃기네요.

흫흐흐흫, 흐흠! 흠. (웃음) 아- 세상에.

(웃음)

아으. 으음! (박수소리) 어, 다음으로 가서-흫흫, 음. 이 강의를, 으음.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아우 진짜 미치겠네헿헿- 아우. 세상에. (박수소리) 이 강의를 듣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강좌가 본인을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어 준 것 같습니까?

처허- 전, 전, 방금 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거랑 똑 같은 질문이네요? 그-

아뇨아뇨, 방금 거는 본인의 문제해결 능력이었어요.

그니까, 문제해결에서 창의적인 것만 바뀐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전후를 비교하는 과정이죠 이거는?

아

이 강좌가 뭐, 이, 여러가지 그런 거에, 뭐, 바꿈을, 어, 어떻게 영향을 줬나 안줬나? 그런 질문이죠.

어- 안 줬던 것 같아요.

아, 창의적이지도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인데요. 으흠.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혼합 수업- 을 또 들었죠?

혼합 수업이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뭐 어떤 거죠?

어, 하이브리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교수님이, 그 뭐야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 수업도 받아가지고 둘이서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수업이요.

아아-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딱 한 번 했었어요.

딱 한 번이라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교수님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못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그죠.

예, 그래가지고-

네, 그랬었어요.

그- 온라인,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느껴졌나요?

온라인 수업이요?

예. 혼합수업 말고 지금은.

어, 어, 근데 사실상 이게 제가 이게 학교에서 제대로 오프라인 수업을 한 적이 없잖아요? 1학기 때부터?

그쵸.

이제 1학년이니까? 그래서 뭔가 이거를 비교를 하고 싶다가도 되게 이게 비교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 불편한 점은 되게 많았죠 왜냐면은 그 이제 훨씬 더 오프라인 수업이 더 좋으니까. 평-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

왜냐면은 이제 질문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 얼굴보고 하는게, 직접적으로 얼굴 대면하면서 하는게 되게 그리고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더?

그쵸.

온라인으로 하는 것 보다?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온라인 수업- 솔직히 말해서 빨리 끝내고 싶죠. 안하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코스가 본인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것 같나요? 여기서 성공은, 이 강좌에서의 성공이요.

음, 좀더 저를, 허, 근데 이런 말 하면 핑계인데,

예.

좀 더 저를 뭔가 좀 게으르게 만들었어요.

아! 게으른- 제가 그래가지고, 하산 교수님한테,

네.

이 강좌, 이- 제가 지금 하는 인터뷰 이것도 강좌는 하산 교수님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접- 제가 그, 찾아가가지고 제가 좀 게을르다고 하니까 그 교수님이, 사람은 원래 다 게으르다고 하시더라구요. 흫흫흫

아하하

그래가지고, 그 때 부터는 뭐, 당연한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으흐흐

그래서 뭔가 거기에 있어서, 어,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그니까 집에만 있어- 있으면 되고,

예.

그냥- 수업 들을라면은 학교까지 안 가고 그냥 노트북만 틀면 되니까.

그쵸.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좀 더 게으르- 게을러지지 않았을까.라는 핑계아닌 핑계를 대봅니다.

근데, 그 핑계는- 그러니까 그- 핑계라면 핑곈데, 근데, 근데 또 핑계는 아니에요. 하하, 말 그대로 핑계아닌 핑곈데, 아니 근데, 솔직히 온라인 밖에 안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뭐 으흠.

그러면 나중에 그, 혼합수업때는 오프라인에 참여했나요 혹시?

네, 참여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교실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어, 좀 되게 색달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제 거의 이제, 일년이죠? 일년 다 됐죠? 일년 다 되도록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학교를 사실 제가 어,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없다 보니까.

예.

가봐도 이제, 그, 이제, 수업, 그, 교실을, 그니까 수업, 강의장이라고 해야되나요? 강의실?

예, 강의실.

그런 데를 가본 거- 가본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냥 교수님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과에 조교들 만나러 가거나 그런 것 밖에 없었는데,

예.

교실에서 진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이 색달랐고, 그 색다르기만 했던 것 같애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혼합 수업이라는 포맷 자체는 어떤 것 같아요?

음, 그냥 그 대면수업이 어땠냐? 그거 말씀하시는?

아뇨, 그것보다는, 대면수업은 원래 오프라인인데,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같이 섞여서 했잖아요?

아, 네. 그죠그죠그죠.

그것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은, 교수님이 앞에 있는데, 다 모니터 안에 있는 교수님을 바라봐야되고.

예.

그리고 이제, 안 온 사람도 있다 보니까, 줌-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니까 현-대면을 하러 갔는데 대면을 하러 가서도 줌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예.

그니까 되게 좀 이상한, 이상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좀 되게 뭐라고 해야되지? 네, 어색했어요.

그게 이유가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았나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 했는데

예.

이제 그 대면 온 사람들은, 대면 온 사람들 끼리 이제 또 줌 들어가고, 이제 옾- 온라인으로 들어온 사람, 온라인 사람은 또 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좀 번거롭긴 하더라구요.

그게 아무래도 뭐, 그, 온라인 사람들도 같이 프레젠테이션 보여줄려고 그렇게 다같이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그죠.

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음, 네, 이, 그, 인터뷰 하시는 게,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인터뷰 하시는게 그, 주제가 어떤, 정확하게 어떤 거에요?

어, 이거 맨 처음에 말 그, 고지하는 거 있죠? 그, 뭐 안녕하세요 뭐 우선 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그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저는,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아.

그니까, 컴퓨팅 사고 능력이에요. …… 대충 카테고리가, 뭐, 창의력, 뭐 그다음에 문제 해결, 알고리즘 능력 뭐, 그 다음에 뭐 협동성, 뭐 그런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인터뷰 해서 뭔가 좀 자료를 얻는 것인 거군요?

에, 이게 뭐, 원래는 설문지도 제가 그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남의, 그 남의 논문에서 있던 거를 그걸 갖다 쓴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뭐야, 설문지도 돌리고 했는데, 근데 또, 이 인터뷰도 하라는 거에요, 교수님이.

하하, 하산 교수님이?

예.

아아.

그 끔찍하죠? 아마, 아마 오늘 또 그거 하시지 않나요 설문조사?

아, 어떤 설문조- 조사, 저희 뭐 받은 게 없는데?

아 진짜요? 어?!

네.

아두이노면은 오늘 그 하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아 네 그 오늘 그거 한 건 있어요. 그 워드 그거 해갖고.

다른 건가? 허허헣

그, 그 설문조사라고 해야되나? 이거를, 그, 조사한 건 있어요. 네, 오늘.

그,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건데, 모르겠네요, 교수님이 제대로- 던졌나 안 던졌나. 뭐, 그거는 교수님 그거 문제고, 제, 제 문제는 아니고.

흐흫흐흫흐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아, 예 그럼.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